

## 사진 속 성탄 이야기

글 · 김유정 / 사진 · 김경상

### 세례자 요한 기념 성당 지하 동굴

세례자 요한이 탄생한 동굴이다. 구약과 신약을 이어 주는 가장 큰 예언자이며, 겸손과 모범을 보여준 세례자 요한의 삶을 묵상할 수 있는 장소다.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요한 1, 1).



우리는 종종 자신의 처지를 불평합니다. 이런 상태라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거라고, 첻바퀴 돌듯 맴도는 일상에 지쳐 하느님께 하소연합니다. 내 인생을 바꿔 줄 무언가를 찾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자신 안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빛을 비추고, 자신을 바라보기만을 기다리시는 데도 말입니다.

“아, 지금 이곳에서만 벗어나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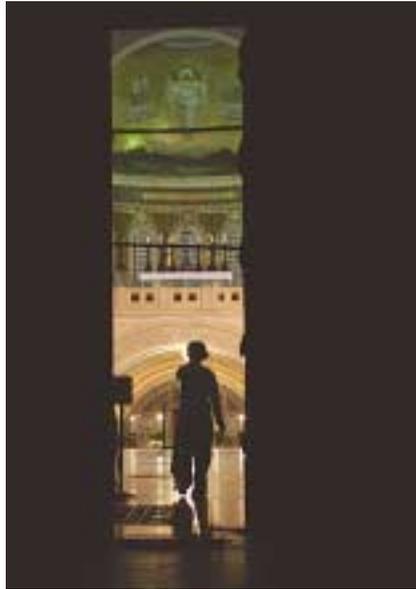
타볼, 예수의 영광스러운 변모 기념 성당

타볼산은 '예수의 영광스러운 변모의 산(마르 9, 2-8)' 이라고 부른다. 이곳에 프란치스코 수도회 소속 '예수의 영광스러운 변모 기념 성당' 이 있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 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요한 10, 3).

그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를 돌보시는 하느님의 음성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시는 하느님을 찾지 않을 것처럼 엄포를 놓고 떠납니다. 하느님께서 그런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며 무조건 붙잡지 않으십니다. 아니라고, 떠나선 안 된다고, 네가 찾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다만 알아채기만을 기다리실 뿐입니다.

“저를 찾지 마세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라는 뜻이다. 기원전 1000년경 다윗 왕이 이곳을 도읍으로 정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이 화려한 신전을 건설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루카 2, 46).

자식을 물가에 내놓은 어미 심정처럼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느님께서도 우리가 홀로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 주겠다.' 하고 속삭이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손을 냉정히 뿌리칩니다.

“꼭 찾아야 할 것이 있어요. 저를 내버려 두세요!”

십자가의 길 - 제9처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다음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언덕까지 걸어간 길이다. 매를 맞으며 걸어가던 예수님께서 수난을 당한 곳에는 모두 예배소가 설치되어 있고, 십자가의 길 중 제10처~제14처는 「예수님 무덤 성당」 안에 있다.

군대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요한 18, 3).

하지만 우리가 하느님께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어느덧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 대로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남에게 손 내밀길 망설이고, 하느님 말씀 대로 살아가길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그 무언가를 찾기 위해 더 바쁘게 움직입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만 이러고 있어야 돼?”



유다 광야

유다 광야는 다른 광야나 사막과는 달리 폭이 20km를 넘지 못하는 지역이다. 때문에 고립되어 있지 않고, 길이 나 있다. 세례자 요한이 자신의 영적 훈련을 위해 찾은 곳이며, 예수님께서 40일 간 금식 기도를 하고 시험을 받은 곳이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 그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로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마태 7, 14).

이젠 쉬고 싶고 목도 축이고 싶지만, 곁에서 함께 걷는 수많은 이들 때문에 걸음을 늦출 수 없습니다. 그들보다 뒤쳐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왜 걷고 있는지도 모른 채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느님께 원망을 쏟아 붓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걸었으면, 오아시스라도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십자가의 길 - 제4차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마태 5, 20).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자신을 따라 오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만합니다. 그 순간, 사람들을 떠나서 혼자서 길을 걷게 됩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래? 내가 생각한게 확실해.”

시나이 산(신 유목민 베드윈족)

‘야훼의 산’으로도 불린다. 모세가 이 산에 올라,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들리는 하느님의 음성을 들었고, 십계명을 받았다. 엘리야도 여기서 하느님의 계시를 받았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이들을 비추시고 우리 발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루카 1, 79).

혼자 길을 걷다보니 말뚝이 되어 줄 사람도 없어 지독한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제는 지쳐서 한 걸음도 뚝수 없습니다. 이쯤 되면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며,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으로 숨으려 합니다. 처음부터 무엇을 찾아 떠났는지 모르니,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쳤어.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 난 저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야. 난 혼자야…….”

통곡의 벽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 장엄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세웠는데 파괴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재건한 후, 성전 서쪽의 웅벽 일부가 남아 있는 것이다. ‘통곡의 벽’이란 이름은 유대 전쟁 때 파괴된 대성전을 안타까워하면서 이곳에서 통곡하며 기도하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예수님 뒤쪽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더니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발랐다(루카 7, 38).



갑자기 앞에는 허물거나 뚫지 못할 것 같은 거대한 벽이 나타납니다. 그 벽에 부딪히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저 손놓고 맥없이 바라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벽은 자신이 쌓은 것입니다. 그것을 쉽사리 깨닫지 못하지만 말입니다. 하느님께 소리칩니다. 이 벽을 단숨에 넘을 만한 힘을 달라고.

“저는 이제 어떡하나요? 이 벽을 어떻게 넘나요?”

예수님 무덤 성당(십자가의 길 - 제14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묻히신 골고타 언덕이 위치했던 곳에 세운 기념 성당이다.

그러고 나서 돌을 던지면 달을 만할 곳에 혼자 가시어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루카 22, 41).



문득 자신이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뜻하고 안락했던 그곳이 생각납니다. 뭔가를 찾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벽 앞에서 되돌아서서 처음 출발했던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되돌아가려니 왔던 길이 만만치는 않았지만,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분의 음성은 들리지 않지만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제가 돌아왔어요. 절 맞아 주긴 하실지 모르겠지만…….”

겔세마니 대성당

겔세마니란 ‘기름을 찼다.’라는 뜻이다.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작은 동산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피땀 흘려 기도하시던 곳이다. 그것을 기념해 동산 왼쪽에 세운 성당이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요한 1, 4).

기도하는 내 곁에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초라하고 아픈 마음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도 내가 찾고 있던 것을 찾아 헤매었다고 했습니다. 나를 바꿔 줄 무언가, 나를 빛나게 해 줄 무언가, 내 삶을 의미 있게 해 줄 그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가까이 다가오는 하느님의 존재가 느껴집니다.



“하느님, 어디 계세요?”

### 홍해

구약의 핵심적인 사건이 일어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경로인 홍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마태 1, 18).



그렇게 찾아 헤매던 것이 바로 이 자리에 있음을 불현듯 깨닫습니다. 항상 하느님을 찾아 헤매는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서 이 자리를 마련하십니다. 해마다 다같이 모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게 하십니다. 약하고 여린 아기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온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하느님 곁에 머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손수 알려 주십니다. 하느님의 숨결을 아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게 하십니다.

“아기 예수님, 환영합니다!”

사진 · 김경상·마태오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총4권의 사진집을 발간하고 8회의 개인전을 열었다. 또, 성가정입양원 개원 10주년 기념 사진전, 애덕의 집 정신지체장애자의 집 개원 20주년 기념 사진전 등에 참여했다. 작품은 가톨릭대학교, 천주교 생명위원회, 평화화랑, 갤러리 등에서 소장하고 있다.